

22개월의 학원수험생활을 마치며



제18회 합격 차경진

• 들어가며

저는 2010년 11월 서울법학원 야간 직장인 종합반(근로자취업과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무사 수험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가능할까 스스로 반문하고, 합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슴 속에 품고 있었지만, 어찌 되었든 저는 학원수강을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 학원수강생활을 시작하고, 하루 단 30분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결석은 하지 않는다.

제가 서울법학원 법무사 대비 종합반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 - 저 자신의 개인적 생각임을 전제로 - 혼자서 공부한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한 오랜 시간 혼자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지식은 그리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느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직장인들은 격무와 잦은 야근에 시달리고 직장 내 인간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등 수험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부는 업무, 직장생활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의 경우 역시 학원을 다니기 전에는 책 한 권 보는데 몇 달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수험생활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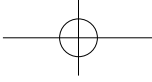
따라서, 저에게는, 수험생활을 철저히 하기 위한 세상과의 적절한 단절이 필요하였고, 그 단절을 지켜 줄 굳은 의지와 방법이 필요하였습니다. 저는 그 방안으로 퇴근 이후 철저히 학원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1차 시험을 볼 때까지 서울법학원에서 개설한 1차 대비 모든 과정을 수강신청하고 수험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학원에서 야간 강의를 듣게 됨으로써 항상 긴장하고, 직장 생활로 소홀해질 수 있는 공부의 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수업시간에 최대한 필기를 한다.

수업 시간에 마치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는 듯이 팔짱을 끼고 허리를 뒤로 제끼고 수업을 듣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절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 반은 야간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격무에 시달린 후 수업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수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졸고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사실은 지나온 후 생각해보니 결론론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일 수 있지만, 저는 1차 종합반 수강 시



절 당시 각 과목에 임하면서 교수님들이 무슨 중요한 말이라도 하면 반드시 필기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공부하는 목적과 수단이 서로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저는 필기하기 위해서 수강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수업시간에 혹 지나가는 말씀을 필기하기 위해서 과발개발 글씨를 쓰게 되고, 나중에 들여다 보면 저 자신도 무엇을 썼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수업시간에 항상 필기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 교수님들을, 교수님들의 강의 및 교수님들의 교수법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저는 서울법학원에서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아! 수험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구나'라고 생각하였고, 왜 좀 더 일찍 서울법학원에 오지 않았을까 후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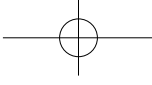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이후에도 결국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 질문, 그에 대한 답변 등으로 쉽게 해결되고 이해가 되었던 강의시간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감동스럽습니다. 법무사 시험에 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석 합격생도 아니고, 시험 출제자도 아닙니다. 저는 바로 서울법학원의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 중 교수님들의 강의를 60%만 이해하여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교수님들의 강의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교수님들이 지시하는 방법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이에 자신의 노력이 더하여져 합격은 필연이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 학원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따라간다.

저는 1차 수험을 직장생활과 병행하여야 하였고, 수험생활에서 특히 직장인에게 초지일관을 지켜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간의 직장생활 경험에 비추어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10년 11월 수강신청하면서 1차 시험에 이르기까지 서울법학원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을 모두 따라가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직장생활, 인간관계에 얽혀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 너무도 뻔히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 1차 시험 수험생활에 대하여



◎ 공부 방법

위 1항에서 밝힌 사항은 제가 1차 시험 대비를 위하여 수강신청을 하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1차 시험 공부 방법론과 관련하여 남과 달리 특별하게 수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수업시간에 충실하고 자 노력한 것 말고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7일간 집중적인 공부였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때문에 강의 시간 외에 따로이 시험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사실상 강의를 듣는 시간만이 1차 시험 대비를 위한 저의 공부시간이었고, 집에 도착하여서는 피곤하여 바로 잠에 들었고, 아침이 되어서는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기 바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울법학원에서 본 모의고사 성적은 평균 60점을 갓 넘는 수준이었고, 저는 당시 저의 점수에 크게 상심하지는 않았지만 - 어찌 보면 직장인으로서 그와 같은 모의고사 성적은 당연한 결과라고 스스로 위로하였던 것 같습니다. - 다만 정말 한 번 열심히 공부해 보고 1차 시험을 보고픈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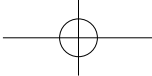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시험 일주일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2011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여 결재를 받았고, 시험(2011년 6월 25일)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모두 7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7일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기본서를 볼 수도 없고, 따로 정리노트를 만든 것도 아니어서 고민 끝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공부했던 문제집 8권만을 들고 2011년 6월 18일 토요일 아침 서울법학원 지하 자습실을 배정받아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7일간 모든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보리라 다짐하였고, 전체 페이지수를 토대로 하루 공부할 수 있는 시간(약 13시간) 및 공부할 수 있는 일수(7일)로 나누어 보니 1시간 당 약 100페이지를 보아야 하였고, 이를 다시 분단위로 환산해보니 약 1분당 1장, 한 페이지당 약 30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에게는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뒤쳐진만큼 그 부족분을 만회하여야 하였고, 저는 그 방편으로써 7일 동안에 문제집 8권을 다 보아야 하였으니까요.

10분 단위로 공부 속도를 체크해나가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속도를 내어 한 문제 한 문제 집중하여 풀어나



갔고 진정 온 정신을 집중하여 어떻게든 당초 목표한 시간당 공부량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일주일에 전과목의 문제집을 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7일간 내에 내가 알든 모르든 그 문제의 지문, 답의 지문을 최대한 머리 속에 구겨 넣으면서 문제집 8권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 제가 생각하는 1차 합격의 요인

첫째, 모의고사 등 성적이 나빠도 굳이 그러한 사실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평균 100점이 아니라 컷 라인이 목표였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에 비추어 충분히 컷 라인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둘째, 예습 복습을 제대로 한 적이 없더라도 학원 프로그램 일정에 맞추어서 각 강의 시간에 최대한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7일간 내에 문제집 8권을 일독할 수 있는 충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7일간 집중하여 문제집이라도 전과목을 일독하였다는 점입니다. 단시간 내에 집중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시험장에서는 보다 기억에 생생한 지문과 정답을 적지 않게 고를 수 있었고 실수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각 자의 조건에 맞게 자신의 공부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다양한 공부방법이 목적하는 목표는 시험 전과목을 얼마나 단 시간내에 일독 해 낼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켰는가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2차 시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2차 수험생활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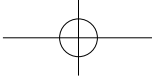


◎ 학원 수강의 선택

2차 수험 방법도 1차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1차에 합격한 후 직장을 포기하고, 수험에 전념하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끝에 서울법학원 법무사 2차 대비 1년 과정에 등록하였습니다.

제가 1년 과정을 등록한 이유는 서두에 밝힌바 있듯이 수험 전문가에게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수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차 시험에 비하여 2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2차 시험의 특성상 더 큰 어려



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정도만 전체 강의를 듣고 그 이후에는 혼자 공부를 해도 된다는 말들을 하였고, 저는 잠시 어떻게 하여야 하나 혼란스럽기도 하였지만 저 스스로 무척 게으른 면이 있었고, 혼자 조그만 책상에 앉아 10시간 이상을 버텨 내어야 한다는 것이 무척 거부감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동차반이 시작된 지 3주 정도 지난 무렵 1년 과정에 등록을 하고, 수험 공부와 관련하여 학원 수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더 이상의 고민을 날려 버렸습니다.

◎ 순환별 공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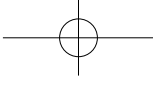
처음 동차반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점은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지만 눈으로만 읽고 있고 머리로는 전혀 읽고 있지를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눈으로만 읽고 있으니 불과 5분전에 읽은 것도 그 내용이 생각나지 않고 책장을 넘기는 것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효율이 나지 않았습니다.

동차반이 끝나고 17회 2차 시험을 본 이후 예비순환과정에 들어가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예비순환 및 1순환까지 공부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예비순환 민소법강의가 시작되면 강의를 1시까지 듣고, 이후 시간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예비순환 민소법 과정 중 3분의 1 기간 내에 전(前)과정인 동차반 민소법 동영상 강의를 들 수 있는 최대한의 배속으로 최대한 빨리 수강을 완료하고(1년반 과정의 경우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3분의 1 기간 내에 민소법 수험서를 읽는데 집중하고, 마지막 3분의 1 기간 내에는 실강을 수강한 이후 현재 과정인 예비순환의 민소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동영상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한 순환당 4회독의 효과가 있었고, 이해의 폭이 깊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과정을 1순환까지 하고, 2순환부터는 수험서를 읽고 정리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순환부터는 매일같이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2순환부터는 그날 배운 과목을 그날 복습하는 공부법을 버리고, 최대한 빨리 그 과목의 책을 선행하여 정리한 후, 그때까지의 나의 지식으로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별도로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절대로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던 것인데 이는 모의고사로 객관적 평가를 저 스스로에게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에는 민법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민법 1독을 마쳤고, 민법 강의 중에는 다음 시작할 형법을 공부하고, 형법 강의 기간 내에는 형소법을 공부하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니 처음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가 점차 강의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성적은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더군요. 즉 예를 들어 형법 과목 실강이 끝나갈 무렵이면 물론 실강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책을 정리한 지가



벌써 약 3주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일주일 내에 본 부분은 기억이 생생하고, 2주를 넘기면 알듯말듯하고, 3주를 넘기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막바지 2주일 내에 전과목 3회독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수험전략(박효근 법무사님이 강의 내내 강조하였던 것입니다)이 왜 그래야 하는지 2순환을 마쳐가면서 어렵פות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저의 수험공부는 동영상강의는 접고, 오로지 실강과 책 읽기 위주로 변경하고, 따로이 서브노트 같은 것은 만들지 않고 오로지 책에다 정리를 해가면서 시험보기 2주 내에 3회독을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주 내에 법무사 2차 시험 전 과목을 3회독 하려면 1시간당 얼마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하는가를 계산해 보니 처음 1주일엔 시간당 약 100페이지(50장)이고, 나머지 1주일엔 시간당 200페이지(100장)를 읽어야 하였습니다. 저의 2순환, 3순환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전 막바지에 이에 근접한 효율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의를 많이 듣고, 회독수가 차 오르는 3순환에 이르자 어느 페이지에 이르러서는 그 내용이 읽기도 전에 목차가 머리 속에서 그려지기도 하였습니다.

◎ 공부시간과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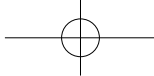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2차 수험생활에 있어서는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시험 막바지 마지막 온 힘을 쏟아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순환까지 대략 2012년 6월 초까지는 일주일에 두 세 번 하루 2시간 정도 검토를 하여 체력을 다졌습니다.

나중에 이 체력이 바탕이 되어 큰 무리 없이 3순환과 시험 보기 2주 전의 과정을 견뎌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시간은 예비순환, 1순환까지는 하루 약 12시간 정도를 확보하였던 것 같고, 3순환에서는 약 14시간 정도,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시험 당일까지는 약 15시간에서 16시간을 확보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요일에도 공부를 쉬지는 않았습니다. 주 2, 3회 검토를 한 시간을 일요일로 보충하였기 때문입니다.

•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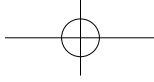
짧게 쓰고자 하였는데 그간의 수험생활을 대략적이거나 조금은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적다보니 생각보다는 긴 장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이 글을 읽는 수험생 분에게, 특히 직장생활을 병행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다면 저에게는 더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합격하신 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합격에 이르기 위해 갖추고 있어야 할 다양한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답안지를 작성하는 요령, 서브노트를 만드는 방법, 초안을 만드는 방법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며, 그 많은 다양한 방법들 중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은 오로지 수험생 분들이 찾아야 할 각자의 몫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저희에게 진실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유석주 법무사님, 배병한 법무사님, 박효근 법무사님, 김영환 교수님, 송춘근 교수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직 수험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살펴 준 아내 정진숙과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학교 중퇴에서 법무사 합격까지



제18회 최연소 합격 권진혁
(19세)

• 들어가며

우선 떨어지면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지쳐있었는데 합격하게 되어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합격수기를 쓰려고 하니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이 스쳐가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좋은 실력과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합격수기를 쓰게 되어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어린나이에 법무사시험공부를 시작한 경우라 어떻게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써보겠습니다. 2008년 말 무렵 당시 태국에서 살고 계시던 이모부내외의 권유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계획에 맞춰 과외도 받고 입학할 학교까지 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갈 생각을 하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 심했던 강박증상이 다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던 도중 우연히, 초등학교 5학년때 쯤 아버지께서 '나중에 커서 실력이 된다면 법무사 시험에 도전해보라'고 하신 말이 떠올라서 법무사시험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았습니다. 일단 시험응시에 있어서 학력과 나이제한이 없는 것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시고 계셔서 부동산과 법에 관심이 많아서 법무사시험의 시험과목과 법무사의 하는 일에 강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무사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쉽게 허락해주셨고 어머니는 내켜하지 않으셨지만 곧 허락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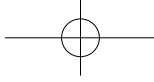
2009년 1월, 서울법학원 3순환 종합반을 수강하면서 제 수험기간은 시작되었습니다.

• 1차시험

◎ 2009년 1차시험

법에 대해 문외한이고 한자도 잘 모르던 제가 기본강의 종합반을 수강하는 것은 죽을 맛에 가까웠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거의 모르겠고 당시 한시간 십분이상되는 거리를 버스타고 통학하다 보니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졸기 일쑤였습니다. 당시 함께 공부하던 한 누나는 '애는 이렇게 잠만 잘거면서 왜 학원에 오지?' 라고 생각했다고 나중에 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기본강의 수강이 한번 끝나고 4월부터 서울법학원 자습실에서 얼마간 김준호저 민법교과서 몇페이지를 보다가 곧 시험때까지 학원자습실에도 나오지 않고 집에서 책을 보는등마는등하며 놀았습니다.

6월달에 1차시험을 보러 갔고 28점이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있을 때라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 2010년 1차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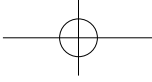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서울법학원에서 기본강의를 골라서 계속 수강했습니다. 법은 현실의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사회생활경험이 적어서 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른들에 비해 어려움이 있었고 이 문제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많이 풀어 나갔습니다. 나름대로 성취도를 느끼며 공부했지만 급한 마음에 요약집을 너무 빨리(1월쯤) 보기 시작했고 결국 기본기가 부족하여 점수를 올리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결국 66점으로 낙방했습니다. 결국 시험은 기본실력이고 요약집의 암기위주의 공부보다는 이해위주의 공부를 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또 어린나이에 너무 자신감에 차있었던 모습은 일종의 자만이었구나... 열심히 하여 한 만큼의 보상을 받으려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2011년 1차시험

1차시험에 떨어진 후 공부가 손에 잘 잡히지 않아서 새로운 2차시험과목을 미리 준비하라는 주변 형들의 조언대로 2차시험 동차준비 종합반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예비순환기간에는 박효근법무사민법예비순환강의와 오경조법무사부등법예비순환강의를 동강으로 보았습니다. 11월에 가족과 함께 서울대입구역근처로 이사를 왔고 본격적인 1차준비는 2011년1월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목별로 공부방법을 말해보자면 민법은 김준호기본서를 위주로 보았습니다. 부등법은 유석주기본서와 오영관 요약집을 보았습니다. 민법과 부등법은 2차시험까지 염두해두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민집법은 여러책을 다 보았는데 나중에는 이천교법무사 기본서를 주로 보았습니다. 상법은 김혁봉교재와 문승진 조문판례를 보았습니다. 상법은 휘발성이 강한데 김혁봉회계사강의를 듣고 남들보다 상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이 상법을 취약과목에서 전략과목으로 바꾸어 준것 같습니다. 헌법은 황남기교재를 보았고 공탁법은 배병한기본서와 김옥태요약집을 보았습니다. 공탁법은 그해 어렵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사례문제들을 대비했던 것이 주효했던것 같습니다. 상등법은 전성재요약집을 주로 보았고 가등법은 김지후문제집을 보았습니다. 저는 문제집을 좋아하는 체질은 아니라 몇몇과목을 빼고는 주로 끝까지 기본서위주로 보았습니다. 끝까지 기본서로 볼지, 문제집으로 마무리할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스타일에 달린 것 같고 시간대비 효율성은 학원의 문제풀이 종합반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친 후 가채점 결과 77.5점이 나왔고 어느정도 합격을 예상했습니다. 시험발표날 77점이 나왔고 기쁘기보다 너무 절박했기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2차시험

◎ 2011년 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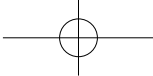
1차합격의 기쁨도 잠시, 서울법학원에서 중합반을 끝었다가 결국 민법, 민소법강의만 듣고 양에 치어 포기하고 나머지과목을 환불하였습니다. 동차기간동안 민법, 민소법외의 과목은 한페이지도 못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떨어지는것 테스트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면 채점자는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었던 스타일로 답안지에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기대한것보다는 좋은 점수가 나와서 놀랐고 시험에서 어떤 내용을 어느정도 요구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감이 결국 기득권시절 공부방향을 정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준 원동력이었던것 같습니다.

◎ 2012년 기득권

민법, 민소, 형법, 민사서류 예비순환강의를 수강하였고 동시에 박승수민사소송법 강의와 김정철형사소송법강의를 동영상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어느정도 만족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11월말쯤에 상당히 안좋은 개인적인 일이 닥쳤고 그 여파로 방황을 하며 1순환때까지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허비한 것이 시험때까지 두고두고 안타까웠습니다. 1순환동안 학원은 다니지 않았고 예전 이두형법무사 동영상강의를 조금 보았고 80년대 관운직책을 구해서 읽어 보고 김일수형법교과서도 구해서 발췌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철학과 법논리학에 강한 흥미를 느꼈고 궁금한 많은 논문들과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도서관에 가기도 했고 홍영기 고려대학교 형사법교수에게 메일로 논문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어차피 시험공부가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시기여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토마코토가 한말처럼 '유효한 쓸데없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순환은 주로 모의고사반 위주로 수강했는데 1순환동안 제대로 진도를 소화하지 못했던 터라 다른 수강생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순환때 했던 연구들 때문에 답안지의 차별성은 생겼는데 막상 알맹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공부스타일을 버리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결론과 키워드위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순환때까지도 그렇게 정리하면서 모의고사반위주로 수강했습니다.

시험이 3주정도 남았을 때는 이번에 함께 합격한 김형주형과 저녁마다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날 공부한 것을 서로 빠르게 설명해주고 시험전략을 짜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같은 교재들을 보았기 때문에 반복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전략도 잘 맞아 떨어진것 같습니다.

참고로 답안지는 답안 목차에 구애받지 않고 간결하게 적으려고 하였습니다. 문제를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고 답안지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험전에 최대한 간결하게 쓰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대신 시간이 남으면 문제제기나 검토는 아는 한 많이 적어주려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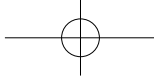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실력은 부족했지만 원래 실전에서 강한 스타일이라 시험장에서 만족할만한 답안지를 쓰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실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지만 시험장 당일 컨디션이 좋아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

• 마치며



짧지 않은 수험기간이었고 남 다른 수험기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에게 가장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여호와 하느님과 부모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많이 효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족한 저를 이끌고 함께 합격하게 해준 동기 김형주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지영형, 이동근형, 송기정형, 박주현형, 정경현형, 우진선형, 오혜경누나, 심재광아저씨를 비롯한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강의와 많은 관심가져주신 학원강사님들과 실장님에게도 고맙습니다.

하루하루가 외롭고 우울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괜한 짓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고 울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해지면 절박해질 수록 합격은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고 중학교 중퇴자인 제가 합격했다면 그 누구라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0회 수석 합격 김석중

• 2차 시험을 치루며

◎ 1교시 -민법-

과락과 수석은 종이 한 장 차이다!

2014년 9월26일 첫째 시간 민법문제를 받아들이고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달되는 서늘한 기운, 과락의 공포였다!

민법 1문 <도급>분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야였다. 다들 그렇듯이...

무엇보다 판례가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없었고 유사사례를 학원에서든 서울 올라가기 전 사시테이프로 독학할 때 든 다루어본 적이 없었던 파트였다.

마음을 다잡고 우선 도급 조문을 펼쳐놓고 사례를 읽으면서 조문과 대조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례 자체가 복잡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지는 않았지만 역시 사례에 대한 판례사안이 떠오르지 않아 어떻게 논점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명시적인 판례 기술 없이 조문만으로 기술해야겠다고 결정하고 사안을 조문에 따라 포섭해 나갔다.

논술시험은 질문에 맞춰 기술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론과 논거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고 1문의1부터 결론을 잡아 나갔다.

1문의1

(1) 지체상금 청구 가능여부에 대하여

(2) 법정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1문의1은 먼저 사안의 도급관계에서 건물이 완성되었는가 아닌가를 판단 내지 결정하고 논점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보았고, 전체 건물 규모에 비추어 욕실 2개 중 1개의 미완성(아예 시공을 안한 것으로 보지 않고 마감처리를 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은 사회통념상 건물의 완성 후 발견된 하자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사안을 포섭해 나갔다.

먼저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소논점 (1)(2)로 나누어 각 지체상금 청구불가, 법정해제권 행사 불가로 내려놓고 논거에 들어가 소논점(1)에서 도급의 정의와 사안에서 일의 완성여부를 논점으로 잡아 기술한 후 도급인의 담보책임(제667조)에 기하여 하자담보책임 내지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고 논거의 결론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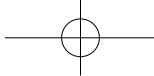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소논점(2) 역시 제668조에 의하여 건물의 하자가 사회통념상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논점을 전개한 후 법정해제권 행사불가로 결론 내렸다.

1문의2-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1문의2는 2차 시험 중 가장 당황한 논점이었다.

유치권판례와 동시이행항변권 판례를 거의 다 정리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례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판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급관계에서 하자보수청구권과 보수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는 판례만을 근거로 일은 완성되었다고 역시



판단한 후 양자가 각 동시이행관계에 따른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수급인의 유치권성립 주장에 대하여는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와 견련채권 및 변제기 도래가 인정되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하자보수채무가 보수청구채권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었는데 실제 1문의2를 기술할 때는 먼저 결론을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기술하였고 논거를 기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논거 마지막과 결론 마지막에 권리남용으로 사안을 포섭해서 기술하였다.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문만으로 사안을 포섭한 것으로는 최선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1문의3

1문의3은 제667조만으로 사안을 포섭하는데 무리가 없어 조문을 충실하게 기술하고 하자보수청구불가하고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 것으로 사안의 결론을 내렸다.

제2문

제1문을 망설이지 않고 조문만으로 사안을 포섭해서 시간 내에 기술한 덕에 2문을 시간 내에 충분히 기술할 수 있었다. (내용생략)

결국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세웠던 제1원칙 “시간 내에 전체 문제를 빠짐없이 기술한다!”는 합격전략을 관철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시험의 제1관문을 무사히 넘기게 된 나름의 방법론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결과는 70.5

◎ 2교시 -형법, 형사소송법-

법무사 실무관련 판례를 정리하라!

1교시 민법을 불안한 마음으로 치른 후 맞이한 제2교시,

시험지를 받아들고 먼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문제를 어 보았다. 어떤 과목을 먼저 풀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쉬운 것부터 풀어 나가는 것이 시간 내에 전체를 빠짐없이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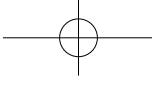
형사소송법 제1문이 눈에 확 들어왔다.

문제로 만들어 두었던 판례를 그대로 출제된 것이다.

법무사가 형사소송을 다루는 실무는 고소장 작성이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고소파트와 약식명령은 중요판례를 최신순으로 빠짐없이 정리했다.

형법도 경매관련, 등기관련 형사판례는 case화 시켜 꼼꼼히 정리해 두었다.

초안지를 잡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1문부터 거침없이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2문-3문은 전원합의체 판례 사안이라 대부분 수험생들이 준비를 했겠지만 1문을 풀지 않고 2문, 3문으로 넘어간다는 건 굉장한 부담이 된다.

1시간 내에 형사소송법을 마무리 짓고 형법으로 넘어가 초안을 잡았다.

형법은 내내 부담을 갖고 학습한 과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3순환 모의고사 과정의 도움이 가장 컸다.

서울법학원 3순환과정 이용배 선생님의 case기술방법을 어느 정도 습득한 것이 논점 일부를 놓치고 사안을 풀었을 때도 무난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결과는 형사소송법 38.5 형법28.5

2틀째

◎ 1교시 -민사소송법. 민사서류-

중요파트 최신판례를 Case화 하라!

첫째 날 형사소송법 제1문이 사례로 준비해 둔 판례에서 제출되었기에 고시원으로 돌아와 부산에서 그동안 아이패드에서 정리해 두었던 판례case 자료(90p분량)를 한번 듯이 보았다.

다음 날 시험지를 받아 들었을 때 손이 떨렸다.

어제 다시 본 판례였다.

부산에서 2007년판 사시테이프와 교제로 강의를 들으며 각 해당분야의 최신판례를 대법원법률정보 사이트를 이용해 판례검색한 후 중요하다 싶은 판례를 case화 시켜 나가며 디지털자료로 정리 했었다.

〈민사소송법은 기관력과 병합소송(주관적, 객관적)이 전부다!〉고 한다.

기관력과 병합소송에 대하여는 끝까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신 중요판례는 거의 빠짐없이 정리한 것 같다.

초안작성 없이 1문과 2문(논점을 빗나갔다)을 기술하자 40분이 남아 비교적 여유 있게 민사서류(소장)를 시간 내에 작성하였다.

결과는 민사소송법51, 민사서류23

◎ 2교시 -등기논술. 등기신청서류-

이해와 서류 중심으로 공부하라!

암기력이 워낙 떨어지는 탓으로 가장 두려움을 가지고 공부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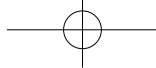
앞선 과목에서 여유가 있지 않았다면 가장 낭패를 당할 수 있었으리라...

부산에서 유일하게 인강을 들었던 과목이었고 시간배분도 가장 많이 하였다.

3순환에 들어가기 전에는 민법과 중복되는 지점을 찾아서 판례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변제자대위-공동저당. 공동저당 대위등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말소, 말소회복등기〉〈경매관련판례-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등등..

수험생들이 제1문 등기필정보 문제가 가장 쉬웠다고 하지만 오히려 나에게겐 불의타가 되었다.



하필 두문자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파트였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1문을 잘게 잘라서 출제한 덕분에 그냥 조문만으로 소화하고, 2문 20점을 충실하게 기술하였다. 말소등기와 이해관계인에 관해서는 민사실체법과 등기절차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이해(즉 이해 관계인인지 여부는 등기기록의 형식으로,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실체법상 대항력 여부로 결정된다는 것)하고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1문의 불의타를 2문에서 보완하고 서류에서 과락면피 하자는 생각으로 미련없이 써 나갔다. 3순환에서 연습한 유증 서류문제여서 다행이었고 시간 내에 마무리 하였다.

결과는 등기논술 42, 등기신청서류22

• 2차 시험에 이르기까지

1994년 상가분양회사에서 상가분양영업을 시작으로 부동산업계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2년 정도하다가 업계가 혼탁해서 2군 종합건설회사(동문건설)에 입사했다가 2년만에 imf를 맞아 퇴직하고 친구가 창업한 시행사에서 아파트 용지매입업무를 2년 정도 담당 했습니다.

2000년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고 중개업을 6년 정도 운영하였는데 점차 직업적 자부심에 회의가 들기 시작해서 법무사시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업계가 건전한 투자문화 없이 안팎으로 투기적 경향을 보이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할까요?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싶은 욕망에서 법무사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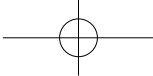
2008년 연말에 일산에서 부산으로 낙향했습니다. 법무사 실무와 가장 가까운 부동산업인 공인중개사 경매전문 사무실을 오픈해서 3년간 경매관련 실무(민사집행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일정한 물질적 준비도 마련되어 딱 3년 만에 같이 일하던 동료에게 사무실을 넘겨주고 2012년 2월부터 다시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그해 1차 낙방하고 다음해에 1차 턱걸이로 합격 후 서울에 올라와 서울법학원 동차반 3개월 수강 후 2차 시험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1차 합격하고 서울법학원에 동차반 수강하러 올라와 보니 제 나이가 수험생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부산에서 혼자 공부할 때는 막연히 수년간 고시준비하다가 눈높이?를 낮추어 법무사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법학전공 기타 인문계통 전공한 젊은 청년들하고 경쟁해서 2차를 패스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컸었는데, 막상 서울 올라와 보니 각자 처한 장단점이 있어 '나이는 문제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무사 시험 성격상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논술case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시험공부는 사실 제가 길었던 방법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점수도 겨우 턱걸이로 합격했으니까요 (70.5). 저는 고시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험테이프를 구매해서 집에서 혼자 공부했는데 2013년 1차 시험에서



그나마 학원들에서 진행한 모의고사 시험지를 구매해서 시간 안배하면서 실전연습을 한 것이 효과가 있어 겨우 컷오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서울로 갈 수 없는 분들은 가급적 학원 인강이라도 진도 맞춰 수강하는 걸 권해 드립니다.

1차든 2차든 합격을 위해서는 시간 안배가 생명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1차 시험은 난이도를 해마다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2년에는 헌법과 상법이 지문이 길어 난이도가 높았다면 2013년에는 헌법과 상법은 짧고(지문의 길이가 곧 난이도입니다) 민법지문이 길어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자만과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기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과목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경매 실무 3년 경험으로 민사집행법에 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년 민사집행법에서 고전을 했고, 마지막 시간인 등기·공탁법에서는 시간이 모자라 마지막 7개를 내리 5번으로 색칠해서 제출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난이도를 높일때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민사실무제요에서 문제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수험생의 출제경향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원교수님들의 역량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의 신중한 학원선택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시간 안배가 제일 중요하고,

2013년 1차 합격 후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법학원에 동차반을 수강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처음 듣다보니 개념정리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3개월 과정 중 형법이 제일 나중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교수님의 강의가 저와 맞지 않아서 중도에 듣는 것을 그만두고 구입해 두었던 이용배교수님의 사시1차mp3플레이어와 교재로 전체 진도의 3분의2정도 듣고 시험에 응했으나 역시 형법에서 형편없는 점수로 과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얼추 컷오프 점수대를 받았습니다. 평균48.5점 나왔습니다.

얻은 것이 있다면 결론이 틀리더라도 결론에 이르는 논점을 전개해 나가며 전체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기술한 경우 평균 50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나름의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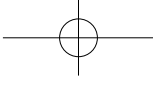
그래서 제가 세운 2차 제1원칙은 '제 시간대에 전체 문제를 빠짐 없이 푼다!'였습니다.

1차를 지방에서 처음 합격하신 분들은 꼭 동차반을 수강하길 권합니다. 집중적인 과정을 한번이라도 거치고 실전을 치루어 보아야 2차 적응력이 생깁니다.

2013년 2차 시험 후 다시 부산에 내려와서 본격적인 2차 준비에 들어 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동차반을 이미 한번 수강했다는 자신감으로 2순환 즈음에 서울로 올라갈 계획으로 학원에서 진행하는 예비순환-1순환을 생략하고 2007년도에 사두었던 사시2차테이프와 교제(2007년도판)를 가지고 민법(윤동환), 민사소송법(이종훈), 형사소송법(김정철)을 들었고, 형법은 이용배 교수님의 사시1차mp3플레이어(그나마 최신판인2012년판)와 교제(신체계 형법강의)로 각 2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위 방법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므로 권장할 수 없는 방법이나,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형사소송법은



개정법과 차이나는 것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중요개정 내용의 범위를 파악했다는 것과 2007년 이후 판례를 대법원판례정보를 검색해 가며 2007년 이후부터 최근판례까지 별도로 정리 했다는 것입니다.

사시를 준비하시다가 오신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학설은 일단 전부 접어 두라는 것입니다. 어설픈 학설을 정리해 보았자 학설을 논점으로 해서 전개할 시험문제가 나오지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학원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등기논술이었습니다. 암기력이 워낙 떨어지는 편이라서 두려움이 가장 컸고 막막했습니다. 다음으로 과락을 받았던 형법이었는데 총론 중 학설을 버리고 가지 못해서(학원 강의를 들었다면 달랐을 텐데) 이미 사둔 교재와 테일로 소화하느라 너무 고생했습니다.

막상 시험에서는 민법 제1문 도급을 전혀 준비하지 않아서 오로지 조문만으로 Case를 풀었습니다. 건설회사와 부동산 경험이 감으로 받쳐 주지 않았다면 시간 내에 전체 문제를 기술하겠다는 제1원칙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1원칙 '제 시간대에 전체 문제를 빠짐없이 푼다!'즉 시간안배입니다.

3순환 모의고사 과정을 충실히 실천처럼 연습한 것이 효과적이었고, 전 과목 모의고사 과정도 별도로 신청해서 시간안배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학원도 수험생도 이 과정을 너무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부분(판례나 분야)에서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답안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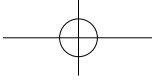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민법 도급부분 이외에는 준비했거나 다루어 본 판례와 분야에서 출제되었는데, 민법 도급부분은 출제된 Case와 관련한 판례가 있는지조차 아직 검색해 보지도 않았습니만 출제된 사례가 조문만으로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시간 끌지 않고 조문만으로 사안을 포섭해서 시간 내에 풀어 나갔던게 위기탈출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형법 1문은 미리 준비했던 판례였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사가 형사소송분야에서 자주 실무적으로 다루는 분야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약식명령이 출제1순위라고 판단하여 대법원판례정보에서 약식명령 판례 중 중요한 것들을 별도로 정리했었고, 그 중 가장 난이도 높은 최신판례였기 때문에 문제로 만들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년도 오기 문제로 좀 당황했었는데(변형된 문제인가 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 내용이어서 검사가 실수로 '오기한 것이므로 공소장 정정사안으로 포섭'해서 처리했습니다.

수험생의 제1스트레스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혹은 암기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가급적 먼저 암기하려고 하는 것 보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해되었을 때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제21회 우수 합격 이영민

• 들어서며



이번 21회 법무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이영민입니다. 5년 전, 처음 법무사를 공부하려고 마음먹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단지 영어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너무나 쉽게 생각한 시험이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법적 지식도 없이 법무사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로 뛰어들었고 한 번의 좌절 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으로 중간에 그만 두기도 했지만, 다시 도전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지금 합격수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기쁘고 영광스러우면서 한편으론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제 수험생활이 다른 분들처럼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법무사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솔직한 마음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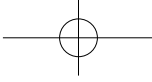


◎ 1차 시험 준비

처음 1차 준비는 6개월, 그 후 다시 1년을 공부했으며 1년 6개월 후 처음으로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사 1차 시험은 과목수가 8개나 되기에 많은 분들이 어떤 과목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하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민법입니다. 민법은 법무사 시험 1차, 2차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1) 민법

저는 법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1년 정규과정을 등록을 했습니다. 첫 강의가 부동산등기법이었는데 4시간 동안 그저 앉아 있다가 점심 식사 후 오후 과목으로 민법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무모했지만 이준현 교수님의 강의 방식이 저와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흐름을 먼저 잡아 주고 나서 세부적으로 정리하면서 진행하다보니 어렵지 않게 민법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민법을 공부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정말 재밌고 다 알거 같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점점 양이 많아지면서 2차 시험 전날까지 괴롭히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공부 시간이 1차, 2차 통틀어 가장 많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민법 공부는 1차, 2차 따로 공부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1차 공부를 하면서 민법에 대한 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2차 공부 편해집니다. 저는 1순환 때에는 기본서를 정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준현 교수님의 강의노트를 구입하여 거기에 제가 별도로 필기를 추가하였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 노트가 민법 틀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해 1차 시험에 떨어지고 난 후에 기본서를 2회독 하였고 그 이후 기본서를 별도로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으며 파트별로 사전 찾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기본서를 보았습니다.



(2) 상법

제가 처음 1차를 공부할 때에 상법은 주로 회사편에서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며 출제된 문제 또한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에서 나왔기에 정리만 잘 해놓으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수 교수님 강의 방식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정리해주셔서 상법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상법은 초반에 회사편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고 반복적으로 돌려서 회사편에서는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으며 보험, 해상, 어음수표 부분은 누구나 힘들어 하는 부분이기에 기본적인 틀만 잡고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3) 민사집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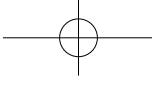
민사집행법은 민법 다음으로 1차 합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민사집행법이 제일 힘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목 특성상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먼저 공부한 후에 접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이 1차 과목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1차 공부를 하면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라고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강의를 듣는 대신 우금도의 민사집행법이라는 책을 2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정독으로 1회독 했습니다.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인강을 2~3번 정도 더 돌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김경태 법무사님 실강을 1번, 인강을 2번 빠르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법무사님이 하는 농담까지 외웠습니다. 그 후 12월 달에 배병한 법무사님 야간수업을 실강으로 한번 듣고 기출문제를 계속 들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틀리면 기본서를 민법과 같이 사전처럼 찾아보면서 그 부분만 빠르게 보고 넘어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법보다는 이해가 안 되거나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을 그때 그때 찾아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은 각론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총론에서 먼저 설명하기에 초반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독을 하기 전에 소설책 읽듯이 기본서를 1회독을 하였고 1회독 후 각론부분을 먼저 정독했습니다. 각론을 먼저 공부하면서 각 파트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쉽게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작업을 한 후에 총론을 보면서 점점 수정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2회독 정도 한 후에 기출문제를 풀어 나갔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제가 잘못 정리한 것들이 나오면 그 부분을 수정해 나갔으며 3월 쯤에는 대부분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5) 공탁법

공탁법은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과목이면서도 정말 어려운 과목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탁법은 민사집행법의 채권집행파트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판례가 이해되지 않는 법입니다. 간단한 절차들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탁법에서는 절대 4개 이상 틀리면 안 되는 과



목이기에 채권집행파트를 제대로 공부하신 후에 공탁법의 판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6) 상업등기법, 가등법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에 이 부분을 써야할지 고민했지만 솔직한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작성합니다. 저는 상업등기법과 가등법은 1차 시험 2달 전에 아는 분의 필기를 복사해서 1주일정도 시간을 가지고 인강을 1번 돌리고 기출문제만 반복했습니다. 문제 수에 비해 공부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았기에 계속해서 기출 되는 부분만이라도 맞추자고 생각했습니다. 상업등기법은 상법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가등법 역시 친족법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에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7) 전반적인 1차 시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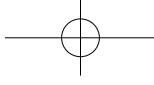
1차 시험은 2차 시험과 달리 객관식이기에 시간싸움입니다.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생각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야 하기에 객관식 문제집을 빨리 풀고 많이 읽는 방법으로 눈에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과목이 많으니 빈틈없이 모두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기출 되는 부분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1차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시험 준비

생동차와 기득권을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에서 3개월 정도 다른 일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다 부모님의 권유로 다시 법무사 공부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1) 민법

2차 공부를 하면서는 1순환, 2순환 민법강의를 따로 수강하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매일 1~2시간씩 각 파트별로 공부했습니다. 2순환 때는 모의고사만 보고, 3순환 때는 모의고사를 본 후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1차 때부터 정리해 놓은 게 많은 도움이 되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서술한 대로 저는 처음 1차 공부를 하면서부터 '민법은 1차, 2차 과목이기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판례뿐만 아니라 요건과 효과까지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분량을 외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문을 보면서 그 요건들을 뽑아낼 수 있게 연습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판례가 아닙니다. 요건과 효과입니다. 공부하면서 주위 분들을 보면 판례는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건과 효과를 알고 계신 분이 드물었습니다. 심지어 요건과 효과를 왜 외우냐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선 요건을 먼저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시면서 그 판례가 어떤 요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1차 시험 후 제일 먼저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민사소송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는 전체적인 소송절차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체적인 소송절차를 이해한 후에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어느 소송절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처음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어렵지만 2순환, 3순환 정도 되면 부담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항상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 형법

형법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판례를 거의 보지 않고 구성요건을 정리하면서 이해하고 암기했습니다. 특히 각론에 나오는 죄마다 실행의 착수시기, 기수미수 구별기준, 죄수 파악에 많은 시간을 들였고 2순환부터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사례에서 죄목을 뽑아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죄목을 뽑아내고 문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파악하면 그 이후에는 이재영 교수님이 강의시간에 설명한 정해진 목차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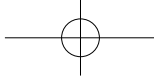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형사소송법은 2순환부터 강의를 들었기에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진 과목입니다. 우선 아는 분의 기본서를 빌려서 강의시간에 밑줄 친 부분을 위주로 빠르게 2회독했습니다. 3순환 때에는 모의고사를 보고 강의시간에 김영환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을 위주로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5) 민사신청서류 및 등기신청서류

민사신청서류 과목은 청구취지 작성요령과 요건사실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요건사실은 민법 공부할 때 외웠던 요건들이 있어서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등기신청서류 과목은 유석주법무사님의 기본서에 나오는 문제를 하루에 2개씩 풀어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서류과목은 처음 공부할 때 이외에는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을 내어 틀만 잡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6) 전반적인 2차 시험 준비

저는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차 시험이 1차 시험과 다른 점을 먼저 생각해보았습니다. 1차 시험은 주어진 판례를 바르게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2차 시험은 사례가 주어지면서 그 사례를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는 과정을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즉, 2차 시험은 각 법의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판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판례를 많이 외우고 있고 시험 사례가 외운 그 판례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 졌다면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판례는 양이 방대



하기에 우선 기본적인 틀을 잡은 후에 판례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놓치지 않는 것 입니다.

• 글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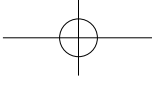


수기를 작성하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의 수기가 시험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너무 공부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힘이 들면 스트레스를 푸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강박관념은 공부에 해가될 뿐입니다.

회독수를 늘리는데 주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을 읽더라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한다는 생각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세 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에는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에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본인만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셔서 매일 매일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자란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1회 수석 합격 조희창

• 시작하기전

먼저 법무사 시험 초심자들에게 입문에 앞서 정말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시길 진지하게 당부해 봅니다. 현재 법무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장미 빛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는데 적게는 2년 많게는 수년의 시간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선불리 시작하였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합격수기를 읽어 보시어, 합격에 이르기 까지 어떻게 노력하여야 하는가와 스스로가 이러한 과정을 수행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는가를, 잘 가늠해 보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서 그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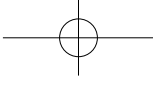
만일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고 후회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거나, 합격하기까지 땀 흘려 노력할 각오가 서 있고, 긴 수험기간 동안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기로 결정” 하였다면 그때 비로소 출발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시작이 반

대학졸업 후 변변한 존재감 없이 살고 있는 나 자신이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2003년경 우연한 기회에 법무사 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법무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며, 설사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 단과 강의로 공부하여 보았으나, 법학의 법자도 모른지라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잠만 오기에 몇 개월 만에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미련은 계속 남았고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 나이 거의 50세가 다 되었기에 더 이상의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시험의 당락을 떠나 진짜 열심히 한 번 최선을 다 해보고, 합격하면 정말 감사하고 떨어지면 더 이상의 미련을 버리기로 최종결정하고, 2013년 7월 15일 인터넷 연간 1차 종합반을 등록하면서 법무사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합격하신 분들의 수많은 합격수기를 읽어 가다보니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대강 이러이렇게 공부한다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면서 구체적인 노력이나 대가는 지불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욕심을 내었고, 현실을 냉철히 보지 않고 탁상에서 공론하면서 고고히 살고자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3~4년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합격수기를 계속 읽다 보니 공부는 굵고 짧게 그리고 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제21회 법무사시험 우수합격”을 목표로 확정하고 2013년 말경 위와 같은 “미리 쓴 합격수기”를 작성하여 내 자신에게 메일을 보내 보았습니다. (다음해인 2014년 1차 합격 후 동차에 과락 없이 근소한 차로 떨어지자, 만일 시작할 때 제20회를 목표로 공부하였다면 동차로 합격하였을지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차 점수는 사실 과분한 점수였으며 1차 공부할 때부터 동차를 생각했다면 아마 1차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하면서 시험에 먼저 합격한 분들의 방법을 배우고, 나에게 맞게 설계하여 “나는 제 몇 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겠다”라는 목표와 그에 따른 플랜을 명확히 하고, 과정 중에 있을 어려움에 대한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합격해서 쓸 합격수기를 미리 써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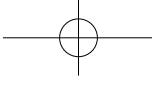
• 1차 기간



시험공부는 학문과 달리 단기간 합격이 목표이므로, 반드시 수험전문기관인 학원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단과반이나 여러 군데의 학원 강의를 듣다보면 스케줄이 중복되기에 복습할 시간이 없으므로 학원 한 곳을 특정하여 연간 종합반을 수강하였으며,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였기에 새벽 3~4시 경에 일어나 그날의 인터넷 강의를 듣고 출근을 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동영상은 단 1차례도 빼먹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출퇴근 시나 업무상 차량 이동시에도 차에 설치된 블루투스로 동영상을 들었고 기타 이동 중에는 무선헤드폰으로 계속해서 가능한 한 반복 청취했습니다. 퇴근 후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10시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인근 공공도서관에서 노트북으로 동영상 강의를 들었으며, 평일에는 4시간 정도 밖에 잠을 못 잤기에 운전 중 깜박 졸려 놀래기도 여러 번 하였고 일요일에는 조금 늦게까지 잠을 푹 잤습니다. 최대한 학원 교수님의 강의 지시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두문자도 교수님이 만들어준 것만을 암기 하였으며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강의만 들으면 그때는 알아들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없었기에



복습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95%정도 복습 하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일부러 힘들게 열정적으로 장시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새벽이라 집중도 잘되었기에 4시간 동영상을 쉬지 않고 계속 들었으며, 하루 종일 공부하는 날에는 최대한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기 연습을 하였고, 처음에는 1~2시간 계속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가 10시간 정도를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공부하기를 몇 번 해 보니 4~5시간 정도는 움직이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공부하는 것이 약간 익숙해지고 난 후에는 1~2 시간 공부한 후에 일어나서 맨손 체조를 한다거나 잠깐 바깥바람을 쐬는 등, 몸을 자주 풀어 주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였는가를 엑셀파일로 표시하여 매일 매일 체크하였으며 15시간 이상 공부하는 날에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습관이 자리 잡은 후에는 별다르게 시간체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학원 강의를 충실히 따라갔는데 ‘과연 내가 잘하고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가 아닌 실제 강의를 들어보고 다른 수험생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싶어서 서울법학원 본부장님께 부탁해 2014년 1월 16일부터 3일간 실강의를 듣고 스터디매니저인 황정규 법무사님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처음 시험을 준비할 때만 해도 1년 안에 그것도 업무를 보면서 1차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도 1년에 합격하면 좋지만 안 되면 2년에 하라고 했는데 황정규 법무사님은 1년에도 합격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라고 조언했고 그 말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객관적인 테스트를 위해 3월 서울에 올라와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았고 당시 ‘첫 모의고사에 20등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딱 20등을 했습니다. 두 달 후 다시 상경해 모의고사를 한 차례 더 보았고 ‘잘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결과는 77점을 받아 합격하였고 곧바로 2차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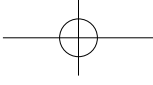
[헌법+상법 74] [민법+가등법 80] [집행법+상등법 72] [부등법+공탁법 82] ----- 평균 77

〈1차 교재〉

헌법- 이재영 기본교재, 문제집

상법- 이상수 기본교재, 조문집, 문제집

민법- 이준현 로고스조문판례, 문제집, 김준호 민법강의



가죽법- 실재순 기본교재, 문제집
민집법- 김경태 기본교재, 문제집, 배병한 조문판례
상등법- 전성재 기본교재, 문제집
부등법- 유석주 기본교재, 문제집
공탁법- 배병한 기본교재, 문제집

모든 과목의 기본교재 1개를 확정하여 그 책만을 보았고 일체의 다른 교재는 보지 않았으며 종합반 강의 중에 서 잘 맞지 않는 과목은 타 학원의 교수님 강의를 기본서로 확정하여 수강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기록은 하였으나 별도의 강의노트나 요약집은 만들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은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취약한 과목은 면과락 또는 평균 부근 정도의 점수를 맞고 잘하는 과목에서 고득점 하는 전략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학원 모의고사 총4회중 1회와 3회를 상경하여 보았고, 나머지 모의고사와 타 학원 모의고사 2회 정도를 도서관에서 혼자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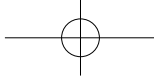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1차시험은 특히 조문과 객관식 문제풀이가 중요합니다. 조문은 틈틈이 시험 때까지 보았으며 판례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보았습니다. 1차 공부중 일정한 눈금 이상 공부를 하여야만 점수가 높게 나오고 그 임계치를 넘지 못하면 점수가 적게 나오는 과목이 있는데 그러한 과목은 임계치를 넘게 공부하였습니다. 상법은 회사법을 집중적으로 하였고, 공탁법은 완전히 이해하도록 공부하였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처음 풀 때 정답을 표시하지 않고 풀고, 틀린 문제를 표시하여 다시 풀고, 또 틀린 문제만 다시 푸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1차 기간 슬로건 - 이해함에 만족 말고 암기하여 합격하자. 공부는 불을 만큼만 80점을 목표로, 서울법학원의 3%가 되자. 수업 중에 파이팅 하여 즉시 즉각 빨아들이자. 1차는 읽는 순간 ○, × 가 떠나 한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반복 반복 반복만이 살길이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당당히 합격하자. 어쩌면 이순간이 행복한 때 일지도 모른다.

• 동차 기간



1차시험 가채점 후 합격권에 있었지만 동차로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다 재시에 합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1차시험을 준비하며 조언을 받았던 행정규 법무사의 '서울에 올라와 동차만 수업 듣는 것이 좋다'는 전화를 받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상경하



여 3개월간의 동차반 강의를 들었고 18회 김○미 법무사를 만나 2차 공부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들었으며, 학원 부근 독서실에서 복습을 하고 11시경에 광명에 있는 작은 자형 집으로 귀가 했습니다. 행정고시를 단박에 합격하신 작은 자형으로부터 궁금한 부분과 시기별 공부하는 방법, 공부가 잘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 항상 자문을 들었습니다.

형법은 예전에 1차 과목이었을 때 몇 개월 공부하다 만 것이 전부였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과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습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복습도 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형법은 어려웠고,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시작한 형사소송법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으며, 감기까지 겹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차에서 어떻게든 과락을 면하자 그러면 합격할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험 당일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차반 윗층 강의실에서는 재시반 3순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그들은 약간 지친 모습으로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3순환 모의고사장에 들어가 처음 산 시험용 법전을 펴놓고 명상에 잠기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읽어 보았습니다. 전혀 답을 쓸 수 없는 문제에 무언가 열심히 쓰는 그들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차피 9월에 있을 시험은 그들과 함께 보는 것이기에 내용도 잘 모르는 모의고사 답안을 독서실에서 시험 볼 때까지 여러 번 읽어 암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동차시험 결과는 과락 없이 평균 52.29점, 컷라인이 53.94점이었기에 정말 아쉬운 점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봤다면 동차로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다른 기간도 중요하지만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는 동차기간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법 56.5] [형법 20.15] [형소법 24.5] [민소법 31] [민사서류 17] [부등법 38.5] [등기신청 21.5] ----- 평균 52.29

〈2차 교재〉

민법- 박효근 기본교재

형법- 이재영 기본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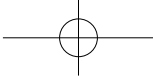
형소법- 김영환 기본교재, 블랙박스

민소법- 박효근 기본교재

민사서류- 배병한 기본교재

부등법- 유석주 1차기본교재

등기신청- 유석주 기본교재



위 기본교재와 수업중 배포한 유인물, 그리고 재시반 모의고사를 제외한 일체의 자료는 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험용 법전을 읽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재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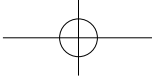


시험을 본 직후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광주로 돌아왔고 1주일 정도 쉰 다음 인터넷 2차 년간 종합반을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비순환부터 예습 복습을 하며 하루하루 충실한 생활을 하였으며 그 후 재시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하기에 사무실을 그만 두고 수험에 올인 했습니다. 큰 아들을 대입수능학원에 내려주고 가까운 공공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 하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둘째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와 자기 전에 잠시 다시 책을 보기도 하였으며, 예비순환부터 3순환까지 종합반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였습니다.

동차시험을 토대로 2차 시험출제 경향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는데 학원에서 가르쳐준 부분과 모의고사로 다루었던 부분에서 상당부분 출제되고 있다고 판단됐고, 민법은 기본적 논점에서, 형법은 기본적인 틀에서, 형소법, 민사소송 등은 최신판례가 그대로 출제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민사서류는 기본 민법지식이 중요하고,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은 최근 법규나 예규 판례 중 변경되거나 쟁점이 된 것들이 출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동차 점수를 보면서 처음 배운 형법, 형소법에서 과락을 면하고 총점에서 합격점에 근소하게 접근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학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충실히 공부하였고, 다른 동차생과 달리 재시반 모의고사 문제를 읽어 보는 등 시험 위주로 공부하여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법무사시험은 무조건 120명을 뽑는 상대평가이므로, 문제 난이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쓴 것 과 내가 쓴 것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생각했고, 현재 S학원과 H학원에서 공부하는 수험생이 대부분이므로 S학원과 H학원에서 강조하지 않은 것이 나오면 모두에게 불의타가 될 것이므로 잘 쓰지 못해도 상관이 없으나, S학원에서 강조한 것만 하였는데 H학원에서 강조한 것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타 학원의 2순환 3순환 모의고사도 모두 풀어 보았습니다. 2순환 부터는 형법을 하는 중에 타 학원의 민법 모의고사를 풀고,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 타 학원의 형사소송법을 풀고 하는 식으로 겹치게 공부하였습니다.



2차시험은 논술식 시험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 연습이 매우 중요하기에 지방에서 공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회 합격하신 나○민 법무사님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광주에서 공부했습니다. 때마침 올해부터 온라인 침삭이 새로 도입되었고 이를 통하여 2순환부터는 단 한 번의 모의고사도 빼놓지 않고 도서관에서 매일 아침 7시 40분에 보았으며, 비록 혼자 보는 모의고사지만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였고, 답안 작성 시에는 각 문제의 배점을 생각했으며, 아무리 못 쓴 답안이라도 전부 업로드해서 연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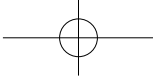
그러다가 시험을 한 달 앞둔 시점에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까’하는 궁금증과 함께 시험 보기 직전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3순환의 맨 마지막 강의인 민법을 수강하였습니다. 민법 첫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이번에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딱 20등을 하였습니다. 그 후 모의고사에 대한 별다른 준비 없이 본 점수가 상위권인 것을 보고 지금까지 온라인침삭으로 답안작성 연습을 한 것이 실제 모의고사를 본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모의고사는 특정 파트를 잘 보는 것보다는 전체 평균점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시 기간 동안에도 잘하는 과목에 집중하고, 못하는 과목은 과락을 면하는 작전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실무에서도 거의 활용이 없는 형법은 비록 전체적으로 모두 빠뜨리지 않고 공부하였으나 교수님이 강조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쓸 수 있게 연습하였고, 형사소송법은 최신판례위주로 공부하였으며, 민법과 민소법, 부동산등기법은 보다 폭 넓게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판례를 따로 구한다거 하지는 않았으며 특히 강점이 있는 부동산등기법은 집중하여 고득점 전략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예비순환이 없는데 다소 부족한 것 같아 타 학원의 1순환 강의를 추가로 들었으며, 목차를 외우는 것은 실제 해보니 아무런 효과가 없기에, 매 강의에 따라 그날의 단원에 대하여 목차를 보면서 심도 깊게 이해하며 정리하였고 반드시 등기신청서류 양식과 첨부서면을 함께 비교하면서 공부하였으며 매 순환마다 이를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변경된 신탁과 합필등기가 나오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신탁이 출제된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여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1차 시험을 80점 목표하여 77점을 맞았기에, ‘2차 목표를 65점으로 정하면 60점정도 맞겠구나’ 생각하였는데 운이 아주 좋았습니다.

[민법 57] [형법 25] [형소법 33] [민소법 48.5] [민사서류 18][부등법 65.5] [등기신청 26.9] ----- 평균 68.48



〈재시 추가교재〉

부등법- 오영관 기본교재

등기신청- 오영관 기본교재

• 몸과 마음의 건강

특별한 노하우는 없으며, 땀을 흘려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런닝머신을 주 3회 정도 하려고 노력했으며 런닝머신을 하는 중에도 그 날의 동영상 강의를 무선 헤드폰을 쓰고 들으면서 하면 금방 1시간이 되었고, 체력 보강을 위해 비타민도 먹고 평상시에도 맛있는 음식과 건강식을 즐기는 등 항상 잘 먹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공부가 잘 안될 때는 공부하지 않고 쉬었으며, 일요일에는 성당에 나갔고 특별히 진도가 밀리지 않는 한 쉬었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뭔가 잘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 때에도 항상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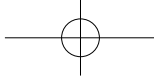
• 시험직전 노력하기

시험직전 버티기와 마무리, 최선을 다하되 진짜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기

법무사 시험은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오르는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지에서 매일 꾸준히 달리다가 언덕 부근에서 가속도를 이용하여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단기간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힘든 마지막 고비에서는 안간힘을 써서 정상을 넘을 때까지 페달을 밟아 그 기세로 넘어야 합니다. 만일 여타의 이유로 언덕의 중간에서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몇 배의 힘을 들여야만 넘을 수 있기에 최종 시험당일을 목표로 평지에서부터 힘을 꾸준히 모아야 합니다.

아울러 시험이란 시험장에서 기술한 것만을 기준으로 당락을 결정하므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처럼 평상시에 성실하게 구슬을 만들고, 시험 직전에 그 구슬을 잘 꿰어서 제출한다면 합격이라는 영광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첫째, 문제를 아주 천천히 읽는다. 둘째, 정답 결론을 낸다. 셋째, 최대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쓴다. 형법은 주거침입과 폭처, 민사소송법은 소송법임을 명심하자.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엔 일체 잡담을 하지 말자. 등에 유념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어 후회가 없었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받아 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생각보다 편안하게 시험 보았습니다.

• 새로운 시작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는 곧 새로운 시작

맨 처음 출발선에 섰을 때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함께 '나도 그분들처럼 합격하여 합격수기를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잠기곤 하였는데,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목표하지도 않은 수석이라는 행운에 무어라 형언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노력한 이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서울법학원 교수님과 관계자분, 그리고 황정규, 김○미, 나○민, 법무사님과 모의고사 온라인 첨삭제도를 도입해준 로스파 담당자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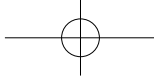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특별히 근소한 차로 동차에 떨어졌을 때 당신의 사법고시 경험을 들려주시며 '방심하지 말고 재시에는 수석을 목표로 공부하라'고 조언해 주신 법무사 김영곤 소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 돌아켜 보기



지나고 보니 시험에 관한 단 한명의 말벗도 없이 지방에서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외로운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기복 없이 매일 벽돌을 쌓듯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학원 종합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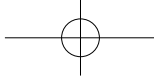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무슨 공부를 하든지 홀로 공부하다 보면 오랜 시간 열심히 한 것 같아도 생각보다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단 과반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강의를 밀리거나 복습을 미루게 되는데, 종합반을 듣게 되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매일 강의를 듣고, 그날그날 복습을 해야 하기에, 힘겹더라도 꾸준히 하루하루 따라 가게 되고 그러다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가 있고, 빠뜨리는 부분 없이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공부하게 되어 과락의 위험을 없애줍니다.



또한 로스파의 모바일동영상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게 해주었기에 반복학습이 되었고, 특별히 타 학원에 없는 온라인 첨삭이 때마침 올해부터 제공되어 지방에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유용한 학습이 되었기에 참으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되고 감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삶이란 모든 이가 각기 형태만 다를 뿐 항상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기에, 스스로가 선택한 힘든 수험생활을 성장하는 과정이라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21회 우수 합격 유형욱

•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1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유형욱입니다.
합격자 명단에 제 수험번호가 있다는 축하전화를 받고 벅차오르는 감격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밀려오는 후회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2차 시험 8번의 도전 끝에 합격한 저로서는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단기간에 합격을 이루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지면을 빌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말씀드리고 저 같은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수험생 여러분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험기간을 조금이나마 단축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몇 자 적기로 하였습니다.

• 기나긴 수험과정

합격의 최종문은 2차 시험의 통과에 있기 때문에 저의 2차 시험과정만을 돌아켜본다면,

1) 첫 번째 2차 시험 — 소위 생동차

대부분의 수험생이 그러하듯이 1차합격의 기쁨과 2차 수험생 신분이라는 들뜬 마음으로 동차반 수업을 수강하고, 시험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2) 두 번째 2차 시험 — 기득권

예비순환부터 학원 강의를 수강하고, 복습위주의 공부를 했으나 공부한 시간만큼 낭비한 시간도 너무 많았습니다.

실력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3) 세 번째 2차 시험 — 재동차

3시쯤 되면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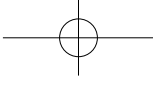
반드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학원 모의고사 점수와 등수가 합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해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만은 금물!

민사서류 작성 과목을 등한시한 덕분에 과락.



4) 네 번째 2차 시험 — 재기득권

3시때와 반복된 학습태도, 민사서류 따윈 합격에 상관없다는 어이없는 생각.
같은 이유로 과락, 불합격.

5) 다섯 번째 2차 시험 — 재재동차

5시부터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는 느낌의 착각이 듭니다.
이미 교만에 가득 차서 학원 강의는 시간 낭비라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합격권에 있었으나 근소한 차이로 불합격.

6) 여섯 번째 2차 시험 — 재재기득권

5시의 경험에 비추어 이번에는 합격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착각입니다.
작년에 열추 1등으로 떨어졌으니, 올해는 꼴등으로라도 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정말 착각이었습니다.
딱 떨어질 만큼만 공부를 한 것이겠지요.

7) 일곱 번째 2차 시험 — 재재재...

시험장을 나와서부터 합격자 발표 때까지 합격의 기대감이 가장 컸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감도 너무나 컸던 시험. 역시 근소차 불합격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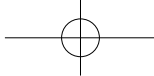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8) 여덟 번째 2차 시험 — 인생을 바꾼 마지막 시험

생계를 위해 수험생활을 직장생활과 병행해야 했던 힘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라는 압박감과 꼭 합격하고 싶다는 절박감.
직장생활 때문에 두 달 밖에 준비하지 못한 공부시간 동안 그 절박감은 공부량과 집중력을 항상 시켜주었습니다.
나름 고득점의 합격!!!

• 조언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수험기간을 지나긴 과정이었고, 잘못된 수험생활이었습니다.
감히, 수험생 여러분께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고 합니다만, 시험에는 분명 왕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학원의 커리큘럼이 법무사 시험에서는 분명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특정 학원에 대한 홍보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학원 수강을 하시던지, 학원 수업을 꾸준히 들으며 진도에 맞추어 공부하고, 다른 경쟁자이자



동료인 수험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혼자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수험기간을 더 길게,
수험생활을 더 힘들고, 지치게 하는 길입니다.
또한 절박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2차 첫 시험부터 이것이 마지막 시험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글을 마치면서



수험생의 시간은 공부를 해도 흘러가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흘러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이 나뉩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다른 유혹에 빠져본들 본인의 신분이 수험생이라면,
그 유혹의 시간 또한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불합격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풍파가 몰아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 수험생활이 힘드시다면,
몇 달 후에 불합격한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응원합니다.